

민주, 7개 분야 20여개...국민의힘 “교통망 획기적 개선”

여야 대선후보 전남 공약 무얼 담나

전남도 건의자료 기초 압축
이재명 측 막바지 조율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듯
윤석열 12~13일 전남 방문
여수 1박·목포 찾아 발표
의대 신설·첨단의료단지 등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9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광주와 달리 전남지역 공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번 주말부터 전남지역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13일 전남을 찾아 공약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 윤 후보와 달리, 이 후보의 전남지역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 후보들이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제20대 대선 전남지역 공약의 윤곽은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확정해 주요 정당 측에 제시한 공약 건의자료(오름 전남 미래 전략)에 기초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오름 전남 미래 전략'이라는 건의자료에서 전남도는 핵심과제 35건, 지역 과제 26건, 제도개선 건의 9건 등 모두 70건을 여야 후보들에 건의했다.

여야 주요 정당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말까지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 지역 공약을 압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조만간 발표할 전남지역 공약에는 크게 7개 부문에서 20개 안팎의 세부 공약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에너지, 첨단산업, 우주산업, 문화·해양·관광, 농축수산업 등 식품산업, 공공보건의료, 교통인프라 등 크게 7개 부문에서 26개 세부 공약을 건의했고, 이 중 상당수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약집에 담긴 공약 사업으로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여수·광양항 그린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 우주 발사체 종합지원센터 설

립, 항공우주연구원 전남본부 설립,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조성 등이 꼽힌다.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에도 민주당은 확실히 힘을 싣겠다고 전남도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호남선 조기 완공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다도해 연륙·연도교 설치 등 교통 인프라 개선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준비해온 전남지역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낙후된 전남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공약을 내용을 계획하며, 집권 후에도 확실하게 전남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전남지역 공약에 상당한 공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국민의힘 측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전남지역 공약단장을 맡은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박정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등을 만나 지역 건의사항을 들은 뒤, 막판까지 전남지역 공약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도 코로나19

등 보건 위기 속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권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점을 공감하고, 전남권의 대인신설에 힘을 싣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다도해 연륙·연도교 설치,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국가 첨단 농업·농촌 복합단지 구축, 광양항 육성, 전남형 RE100 산업벨트 구축 등도 전남도 건의를 받아 대선 공약 반영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전남지역 공약 발표를 위해 주말인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을 찾는다. 여수에서 1박을 하고, 열차에 올라 전남을 두루 살피며 목포까지 와서 지역 청년들과 함께 대선 전남 공약을 발표하는 여정의 일명 ‘윤석열차’를 선보인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전남도민의 마음을 안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공약을 충분히, 면밀히 준비해왔다”며 “낙후된 전남의 경우,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 없이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재명, 김종인·이상돈과 회동

중도·부동층 잡기 '사활' 尹 향한 직격성 발언도 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대선 막판 하향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흐름을 보이며 선대위는 물론 민주당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던 설 연휴 민심도 기대한 만큼 움직이지 않은데다, 같은 기간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이 불거지고 연휴 직후 열린 첫 TV토론회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과 선대위에서는 설 연휴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대선 막판 40% 중반대의 지지율로 대세를 형성한다는 그림이었다. 이처럼 상황이 녹록치 않게 돌아가자 이 후보의 대선 전략도 보다 공격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메시지도

보다 강하게 전환하는 한편 스윙보터인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물'을 보인 데 이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일부 친노·친문 지지층과 중도 및 합리적 보수 성향의 부동층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던 이 후보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나란히 양강 구도를 달리고 있는 윤 후보를 정조준한 직격성 발언 빈도를 늘리며 선명화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이는 지지층 결집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토대로 이 후보는 물론 선대위, 당 지도부도 전면에서 연일 윤 후보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靑 “한복은 재론의 여지 없는 우리 전통 의복”

청와대는 7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 국내외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한복이 우리의 전통 의복 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복이 우리 전통문화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지난 4일 개최된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등장하자 국내에서는

“중국이 한복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개회식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으로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럴 필요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맞서서 ‘문화공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외교부는 “문화 관련 논쟁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리얼미터 조사...안철수 7.5%

다자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 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후보는 43.4%, 이 후보는 38.1%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3%포인트로 오차범

다자대결, 윤석열 43.4%·이재명 38.1%

위(95% 신뢰수준 ±2.5%포인트) 밖이었다.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는 3.2%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0.4%포인트 하락했다.

안철수 후보는 2.8%포인트 떨어진 7.5%를 기록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1%포인트 오른 2.5%였다. '기타 후보'는 2.3%, '없음'은 4.3%, '모름·무응답'은 1.8%였다.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윤 후보는 49.0%로 이 후보(40.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안 후보는 4.2%, 심 후보는 0.5%로 뒤를 이

었다. '공약을 잘 이행할 후보' 조사에서는 이 후보 39.2%, 윤 후보 38.2%, 안 후보 10.6%, 심 후보 3.8%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이 42.2%, '부정'은 54.4%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임의결기(RDD)로 무선(95%)·유선(5%) 표본을 추출해 전화면접(24%)과 자동응답(76%) 방식으로 시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순천시 세계유산 알리기 캠페인

낙안읍성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합니다.

Korean Heritage Route Suncheon

순천의 탁월한 가치를 만나는 여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낙안읍성